‘오너리스크’ 키움증권, 주가 20% ↓… 개미는 불매 움직임

기관들, 10여일째 주식 순매도 중
시총 2조3335억, 약 4000억 증발
논란 확대, 김익래 회장 ‘사퇴’ 하고
주식매각대금 605억 사회에 환원
키움증권 조사 착수 등 ‘악재’ 겹쳐

/키움증권

키움증권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한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주식위탁매매 부동의 1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기관들이 10여일째 키움증권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도 불매 운동에 나서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는 불과 10여일만에 지난달 중순 연고점 대비 20% 가량 떨어졌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키움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2%(1100원) 하락한 8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키움증권의 주가는 지난 19일부터 4일까지 11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타고 있다. SG발 주가 하락 사태가 표면화한 지난달 24일 마감 금액은 10만4700원이었으며, 최근 한 달간 고점은 10만9400원(지난달 14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봤을 때, 4일 키움증권의 주가는 최근 고점대비 20% 가까이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지난달 21일 2조7451억원에서 이달 4일 2조 3335억 원으로 약 4000억 원이 증발했다. 지난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연기금·금융투자·보험·투자신탁 등 기관투자자들은 639억7967만 원 어치를 매도했다.

지난해 키움증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한 작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주식 시장점유율(누적)은 19.6%이다. 이는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주요 5대 증권사의 점유율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수치로 업계 1등의 자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SG발 주가 조작 의혹이 깊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매 운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김 회장은은 지난 4일 회장직을 사퇴하고, 주식 매각대금 약 605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 선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SG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조명되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면서 김 회장을 배후로 지목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저의 주식 매각에 대해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으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주와 국민에게 모두 부담을 주는 일이라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키움증권 측이 김회장의 연루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김 회장의 오너리스크 해소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 3일 금융당국이 키움증권에 대해 차액결제거래(CFD)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악재가 겹쳤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키움증권의 CFD 서비스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내부 임직원 정보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주가폭락 사태 2거래일전인 지난달 20일 보유하던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 거래로 매도해 현금 605억원을 현금화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시장포지션은 견고하고 증권사들의 주가 전망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당장 변하지 않겠지만 이번 SG사태 이후 시장에 불거진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하반기, 불확실성 걷히고 실적회복 예상"

metro 관심종목

삼성전자

증권사 "2분기 말부터 ‘감산’ 효과
장기적으로는 배당성향 높아질 것
울트라 모델 중심 S23 매출도 호조"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 개선 구간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 매수 접근이 타당한 시기로 분석됐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가 2분기 말부터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46% 빠진 6만51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다. 세계 1위 메모리업체인 삼성전자는 25년만에 감산을 공식 선언했다. 반도체 업계 불황에 대비하고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95.5% 급감한 6402억원이다.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낸드(NAND, 고단화)에 이어 올해는 디램(DRAM, 미세화) 손실까지 더해져 1조원 규모의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파운드리의 경우에도 게이트올어라운드(GAA) 2세대를 개발 중이지만 전방 수요 부진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증권사들은 감산효과가 2분기 말부터 드러나면서 하반기에 실적 회복에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감산을 통한 공급 축소 효과가 2분기 말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하반기 극대화될 것"이라며 매수 접근이 타당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도 "하반기에는 매크로(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이 크게 악화됐음에도 기존 배당지급액을 유지하면서 배당성향은 74%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긴축 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소비경기가 다시 회복되면 절대 배당액이 다시 증가하면서 배당성향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신모델의 호조 영향도 주목된다. 김영권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울트라 모델 중심의 S23 호조로 모바일 경험(MX)과 디스플레이(SDC) 수익성이 확보되는 등 반도체 분야의 부진이 상쇄됐다"며 "불황이 지속됐지만 S23의 진가가 발휘된 1분기"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각각 8만2000원, 8만7000원으로 유지했다. 투자의견 역시 '매수'로 동일하다.

/신하은 기자 godhe@

호반건설의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조감도.

부동산 불황 속 호반건설 완전분양 신화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100% 계약
부채비율 0%,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호반건설이 '표정관리' 중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도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1051가구 중 39~84㎡ 493가구 일반분양)가 완판 돼서다.

호반건설은 최근 작년 12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 10R구역에 공급한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가 100% 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분양을 털어냈지만 짐짓 기쁜 표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업계가 미분양과의 전쟁으로 곤혹을 치루는 상황이어서다.

호반건설은 20여년 동안 미분양아파트를 경험해보지 않은 업체로 꼽힌다. 매년 1만여가구를 웃도는 아파트사업에도 완전분양 신화를 써왔다. 따라서 업계 최초 '부채비율 0%', 하도급대금 현금지급을 실현해 왔다.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도 3군에서 1군으로, 전체 10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물론 호반이 사업 확대, 인수합병 등으로 그룹으로 성장하면서 부채비율이 36%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광명단지는 호반에게 특별한 사업장이다. 호반의 성장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업역 확대를 꾀한 이래, 수도권에서 1000여가구가 넘는 사업장은 광명이 처음. 수주 당시 대형건설사가 모두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였다.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따낸 수주였던 만큼 성취감도 컸다. 하지만 분양시기에 이르러서 코로나19 사태 속 미분양 폭증이란 초유의 환경을 맞았다. 미분양아파트가 8만여가구를 육박해 시장이 얼어 붙고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했다.

미분양 10만가구 시절에도 100% 분양신화를 이어온 만큼 다른 업체들이 분양시기를 저울질하는데도 브랜드를 믿고 나섰다. 결과는 최근 미분양을 모두 털어내는데 성공했다.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의 완판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합리적인 분양가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다.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의 완판은 호반건설이 연내 공급할 예정인 용산 국제빌딩 5구역, 개봉 5구역 등 서울 도시정비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완판은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도 '호반써밋'의 상품성이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광명 뉴타운의 명품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서울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4주 연속 둔화

매매수급지수는 9주 연속 상승세

최근 급매물 소진 지역이 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매매수급지수는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07%)보다 0.02%포인트(p) 축소되면서 4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노원구(0.04%→0.02%)가 중계·상계동 중저가 구축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도봉구(-0.29%→-0.19%)는 창·쌍문동 대단지, 성북구(-0.16%→-0.11%)는 정릉·길음동, 광진구(-0.15%→-0.13%)는 광장·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19%→-0.17%)가 등촌·염창동, 금천구(-0.13%→-0.12%)는 독산·시흥동 대단지, 구로구(-0.21%→-0.15%)는 개봉·구로동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서북권에서는 은평구(-0.10%→-0.08%)는 응암·수색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동남권의 경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송파구(0.04%→-0.01%)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주 상승 전환한 강남구(0.02%→0.03%)와 서초구(0.03%→0.02%)는 주요 단지의 저가 매물 소진 이후 매물가격이 오르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하락세가 지속 중이나 일부 지역에서 선호 단지 위주로 실거래 및 매물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 하락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수급지수는 9주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kdh@